

필자가 정인국 교수를 처음 면당(面當)하게 된 것은 1968년 홍익대학 재학시절의 강의실에서 이다.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는 마치 한 마리 큰 학과 같은 걸음으로 긴 복도를 걸어오셨다. 적당한 이마에 머리는 올백으로 단정히 빗어 넘겼으며, 눈이 깊고 입매가 다부지다. 비교적 큰 키와 조금 여윈 체격에 다리가 특히 길어 휘청거리듯이 걸어 오셨다. 교단에 선 이 분은 우리에게 세계의 건축예술이라는 창을 활짝 열기 시작하였다. 건축과의 고향에서 비로서 만난 그 첫 강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적 충격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다가온 단학(丹鶴)과 같은 인상은 점차 그분의 걸모습만이 아니라, 이 세기말의 선비와 같은 내적세계를 알게 되면서 더 짙어갔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부설연구소에 들어 보다 깊이 그의 내면세계를 알아가며 '결과 속의 일의성'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강의는 항상 생동적이다. 그 이유는 그의 강의를 현장성이 생생하고, 역사라는 시간성을 분명히 하며 내용을 주지시켜 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건축을 국제성에서 말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지체성을 통해 현재를 알게하는 그의 설득력은 항상 인상적이었다. 197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장에 임명되며 홍익대학의 최고학부로서 면모가 완성된다. 같은 해에 건축·도시계획연구소장에 취임한다.

정인국 교수는 1974년 한국건축가협회장에 피선되며, 그 동안 잠시 소원하였던 건축사회에 다시 깊이 개입한다.

## 한국의 건축가—정인국(完)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북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넓은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 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명구·엄덕문·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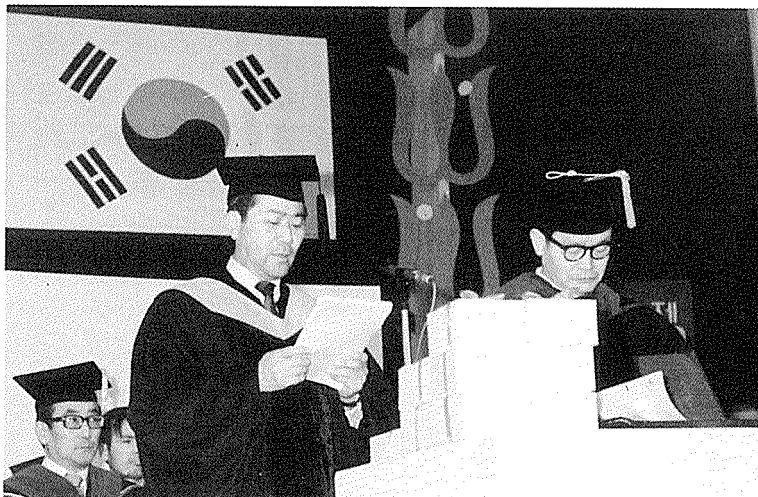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 목조건축양식론」

###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홍익대학 대학원장 정인국/1973년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국제건축가연맹 UIA 관계

1974년에 한국건축가협회장에 피선된다. 당시 부회장은 한정섭과 이해성 교수였다. 이 1974년에서 1976년까지 2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한국건축가협회의 괄목할 만한 사업은 국제건축가연맹 UIA를 통해 국제무대에 나서는 것이다. 정인국 교수는 건축가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이 건축 사회에서 제기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協會는 建築創造家들의 團體이기 때문에 그러한 人間의 集團으로서의 純粹性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社會의 다른 團體가 人緣, 地緣, 學問에 의하여 얽히고 설힌 관계로 苦悶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協會만은 超然히 建築家다운 孤高함을 지키면서 오직 韓國建築이 무엇을 追求하는 사람들의 團體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建築哲學을 確固히 하고자 하는 本人의 宿願을 여러 會員들

의 힘을 빌려 成就하고자 합니다. 解放된지도 이미 30년이 지난 오늘 建築家 個人的 自己 建築作品에 대한 態度는 있어도 어떤 時期에 있어서 韓國의 立場을 엿볼 수 없습니다. … 이 길을 위하여 建築批評을 暢達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建築家들 자신이 自慢과 自己陶酔와 偏見을 버리고 思索할 줄 아는 雅量을 베푸는 일이 앞서야 할 줄 압니다. 셋째로 建築家들의 韓國文化社會에서의 자리를 한 단계 높이는 일이 여러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建築家와 施工業者의 區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이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나 建築家들의 作品의 質의 향상과 建築論의 暢達과 文化藝術團體 안에서의 役割만 제대로 한다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素地는 되어 있습니다.”<sup>1)</sup>

이러한 정인국 회장의 목표는 그 후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이복 출신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때 변방인이었고, 학연과 지연으로 기존 사회의 구도에서 불편하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의 이러한 학연과 지연의 타파를 위한 충언은 그밖에 여러 경우에서 많이 토로되는 것과 같이, 그의 심상에는 이러한 고질적 계파의 구조가 한국건축계를 위해 건강하지 않은 요소라는 기억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둘째 건축의 철학 부재에 대한 문제는 동시대의 한국건축이 갖는 원천적이고도 해소되지 않는 허점이다. 문화인의 인식도 무위도식의 양태로서 그러하거나, 사회적으로 보습의 기회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인국 회장은 가장 앞서 자신이 실천을 보여 간다. 셋째, 한국문화 사회에서 건축의 위상이 그의 사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건축의 진화라는 것이 몇몇의 건축적 관심이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와 문화와 함께 총체적으로 진보된다는 메커니즘임을 설득하고자 함이다.

1974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규칙이 다시 개정된다.

건축으로서는 제23회부터 국전운영위원회에 건축부문이 처음 참여하게 되어 정인국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때부터 국전은 4부로 구성되는데, 1부 - 구상회화 및 조각, 2부 - 추상회화 및 조각, 3부 - 서예 및 사군자, 4부 - 공예, 건축, 사진으로 구성하되, 2, 4부는 봄에, 1, 3부는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사학위 수여 / 1974년

그는 건축사회의 기여를 위한 신인 발굴과 함께 그의 교육적 책무는 국전에서 건축예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책무를 위해 당시 엄덕문, 강명구 등과 함께 찾은 국전에서의 기회는 당시로서 건축의 사회화를 위한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였다.

1975년 5월의 13

차 국제건축가연맹(UIA) 베니스 총회에는 정인국, 나상기, 김수근이 참석하고, 우리나라는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북한은 이미 1967년 대회부터 계속 이사국에 선임된 바 있는데, 이 총회에서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막으려고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북한은 국제정치와 문화계에서 한국에 크게 뒤져있지 않았다. 정인국 교수는 UIA 이사국 피선을 자축하는 리셉션에서 건축가 단체 활동의 국제화, 문화전문 단체로서 건축가협회의 결속을 위한 동기로서 강조하며, 그리고 대북(對北)관계에서 뒤쳐졌던 이념적 감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最近의 國際情勢는 多極化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國際間的 地位向上을 위한 모든 努力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는 오늘 建築家 團體라고 종래와 같이 坐視할 수 없는 形便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北僞建築家集團體는 계속 8년 동안 理事國으로 行세하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천하는 國際情勢와 對北僞와의 關係를 고려할 때 우리 韓國建築家協會가 應당 理事國으로 選출되어야 겠다는 信念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 韓國의 建築家 자신들의 문제에 關係해서 協會가 國際團體 機構에 理事國으로 當選되었을 경우 그 지위가 우리 社會에서 더 높게 評價되며 우리의 社會的 職分도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希望이 결들여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엔 다행하게도 理事國으로 當選되기는 하였으나 과연 文化施策者나 社會에서 더 향상된 待遇를 받을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우리들 自身이 더욱 努力해야 될 줄 압니다. … 協會도 창립된지 20년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명실공히 협회를 이끌고 나아갈 世代가 交替될 적합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뒤에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일을 해 놓고 물러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協會 안에는 山積한 많은 問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國際的인 活動舞臺를 넓혀주는 것이 韓國建築 水準을 향상시키는 절실한 것이라 느껴집니다. …”<sup>2)</sup>

문화공보부의 총회 참가비 지원과 외교적 지원과 함께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던 이 UIA 총회에서 정인국은 이사, 김수근은 교체이사가 된다. 그러나 정인국 교수는 이사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976년 별세하였다.

이미 그는 UIA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 1974년부터 박사학위 논문과 건축단체장의 업무로 그의 건강은 피폐해 가고 있었다.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먼 외국 여행길을 염려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



홍익대학 건축전시회

1) 건축가협회 회장 취임사 1974. 3.

2) 韓國建築, 世界舞臺 跳躍의 契機 이록 / 회장 鄭寅國 / 建築家 75.6-10.



제13차 UIA총회, 베니스 / 원편으로부터 나상기, 정인국, 김수근

의 뇌리에는 한국건축가협회장에 취임하며, 그가 한국건축가사회에 던진 문제와 해결의 상당한 답이 이 총회의 성과에 달렸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건축이 갖는 동시성으로서 시대적 가치란 화석화(化石)된 물적 대상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가치로 지속될 향성의 가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를 고무하는 것은, 비록 불변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성으로서 가치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국면을 관류하여 온 현재성으로서 가치까지이다. 이와 같은 동시성의 관점에서, 이론과 작품 작업을 하기에, 합리주의 - 지역적 가치성 - 한국성의 모색에 이른 과정을 동태적으로 실천한다.

정인국의 작품, 학술, 사회에는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사실상 그는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중에서 지고의 예술적 성과를 본 것은 충분치 않다. 그의 이론과 실천이 항시 정합(整合)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실천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어떤 한계성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의 합리주의 시기에 사무소 스패는 거의가 6m 그리드 단위였다.

그가 원칙에 너무 쉽게 타협되는 경향도 보인다. 그가 낭만적 기운에 기울어진 시기라 하여도 그의 조형은 합리주의의 전형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다. 한국성의 시기에 그의 조형은 합리주의의 원칙성을 뛰어넘는 표현은 아니었다. 그의 학술적 성과가 국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연구계획에는 더 큰 나머지의 것이 남아있었다. 그의 사회적 성과는 지대하나, 그 자신이 학자라는 한계에서 도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대적 역할이 예술, 사회, 학술이라는 총체성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허기(虛氣)가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정인국 교수 자신에 있어서나 그의 시대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더니즘을 정리하며 건축의 문화적 동태성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 자각의 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의 아주 사소한 요구조차 물리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자 하였다. 그러하고 보면 그의 천수(天壽)를 우리 시대사회가 빼앗고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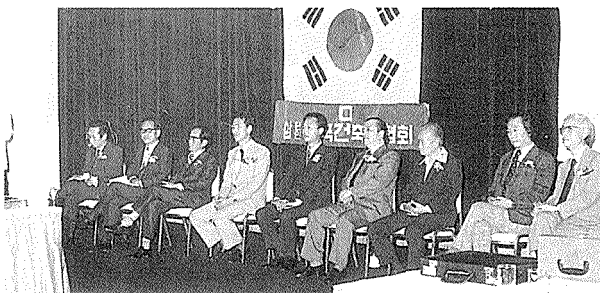
우리는 한 작가가 그의 시대적 소명과 건축관을 어떻게 일치시키며 한 시대의사를 밝히는가를 그에게서 배운다. 비록 20년에 지나지 않는 작업시간을 통해 3개의 시대정신을 경험하며, 자기 변용을 거듭하는 동안 궁극적인 자기 결론을 성취하는 경과를 살피게 되었다. 정인국 교수에게 있어서는 그 이후에 남은 궁극성이 무엇인

지는 가늠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도 확실한 것은 건축의 시대적 책임을 강조하며 또한 시대적 논리를 실천하는 그의 뜻이다.

1974년 10월 21일, 문화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정인국에게 보관문화훈장(寶冠文化勳章)을 서훈하는데, 그 훈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축적 표현에 깊은 연구가 있으며, 국전 심사위원, 문화재위원으로 피임된 이래 역사적 구조물 보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유의 건축양식의 분석 평가 및 중요건물의 건축활동의 참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한국건축 발전에 공헌하였다." 위의 훈공이 정인국 교수의 전모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개인의 훈공으로서 매우 장황하다. 아마 이것이 정인국 교수 또는 이 시대 상황에서 선구자들이 가지게 되는 하이브리드한 사회적 역할이었다. 그는 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건축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책임을 일구었다. 정인국은 대한건축학회의 이사에서 참여이사까지를 지내나, 학회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아주 가까운 관계가 다져지지는 못하였다. 1976년 대한건축학회상 학술부문이 정인국 교수에게 추서(追叙)된다.

1974년 초 그는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국제 Habitat 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간암의 병마에 휩쓸리게 되고, 이 여행은 이송에서 이루지 못한다.

그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더니스트와 같이 일제시대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광복 후에 건축적 실천을 도모한다. 더욱이 그는 이북출신의 월남 지식인으로서 이데올로기라는 난류를 거슬러 넘어와야 하였다. 해방후 피폐하여진 사회에서,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척박한 경제와 문화의 환경에서 합리주의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빨리 세계의 건축 상황이 제3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설파하며, 한국적 모더니즘을 실천하여 보인다. 지역적 특질은 그의 절대적 가치관이 되며, 그 고유성을 찾기 위한 원형질의 연구로 되짚어 간다. 이 일련의 과정은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한국성의 모색이다. 동시에 그는 건축이 얼마나 사회적이며 총체적으로 거동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교육계, 건축단체, 국제 무대에서 마지막 기운까지 소모하는 것이다.



건축가협회 회장 정인국 / UIA 이사국 피선 축하 리셉션